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는 화천기계(주) 건물

필자는 서초구 방배동소재 화천기공 권영열(永烈)회장(대종원 부총재)을 찾았다. 권회장이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선도적역할을 하며 우수 제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문사에도 적극적이어 취재차 들렸는데 본인은 겸손히 선친의 가업을 승계하였으니 참고하라고 서암(瑞巖) 권승관(權昇官)공의 자전을 주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피와 집념으로 일구어 낸 인간의 승리이며 권문의 자랑임에 지면을 할애하여 연재코자한다.

1. 기계와 함께 해 온 세월을 돌아보며

내 나이 열여섯 살 때 전주의 한 주물공장 견습공으로 취직을 해서 쇳물 인생, 기계 인생을 시작한 지 어언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언제 어디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보다 항상 먼저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습관을 길렀다. 쉬는 시간이나 휴일에도 한가하게 쉬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한 발 앞선 숙련공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면 빨리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공장 안에서 기계에 둘러싸여 새로운 아이디어며 용기가 생겼다. 나는 어느덧 그 기계들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해방이 됐을 때 일본인 주인 시게우라 씨가 내게 공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오늘날 화천의 시작이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화천을 우리나라 공작기계 발전의 선구자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왔다. 누가 물으면 기꺼이 '다시 태어나도 기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다. 1970년대 초 제1차 오일쇼크가 닥쳐왔을 때와 제2차 오일쇼크와 정치적 격변이 겹쳤던 1980년대 초가 그 중 제일 심했다. 만든 제품은 팔리지 않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봉급을 반납하고 퇴직금까지 구사자금으로 동원하여 회사를 살리는데 발벗고 나섰던 화천가족들의 고귀한 단결력과 희생정신 또한 자랑스런 기억으로 떠오른다.

나는 평생의 좌우명으로 '성실'과 '정직', '끈기'를 얘기한다.

주물공장 견습공이 되다

내가 열여섯 살 되던 어느 여름 날이었다. "니네들 어디 다니길래 옷이 그렇게 새까맣냐?" "솥이랑 보습이랑 만드는 공장에 다녀요." 아이들은 하루 품삯으로 25전을 받는다고 했고 주인에게 잘 얘기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해주었다. 나는 공부를 할 것인가 공장에서 일을 할 것인가 마음이 흔들렸다.

집안의 장래를 위해 나만이라도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공장에 들어가려는 용기가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고생을 감내할 생각을 하니 그 또한 견디기 어려웠다. '전주주물공장'을 찾아갔다. 일본인 주인인 고바야시(小林)는 나를 보더니 '쇠붙이 다루는 일은 무척 고되고 어려운 일인데 어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고바야시는 일본인이면서 우리말을 곧잘 했는데, 일본인 주인은 나를 받아주겠다고 응낙했다. '내일부터 공장에 나와 열심히 기술을 배워 요다음에 이 나라에서 1등가는 기술자가 돼라.' 나는 그 순간 뛸 듯이 기뻤다.

어머니는 '어느새 네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니. 어찌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승관이 너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텐데—' 하시며 아쉬워 하셨다.

다음 날부터 전주주물공장에 출근하게 되었다. 기능공이 10명쯤 되었고 나 같은 소위 시다바리(견습공) 소년들이 14명 정도가 더 있었다. 숙련공의 경우 하루 동안 쟁기나 보습을 100개 정도 만들고 일당으로 2원 25전을 받았다. 소년공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일당 가운데서 25전만을 떼어 주었다. 일은 새벽 3시부터 저녁 7~8시까지 계속됐는데 나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무척 힘든 작업이었다. 아침밥과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먹고 일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럴 형편도 못 되었다. 나느 공장의 식사시간이 되면 짐짓 밥을 먹는 체하며 우물가로 나갔다.

당시 우리 어머니의 정성은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할 정도로 열성이셨다.

일당 숙련공 시절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나는 그때 정말 행복했었다.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물건을 만들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과 비교해 가면서 뒤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내 밑에서 배우려고 밥도 사고 과자도 사면서 나를 따랐다. 어느덧 열아홉 살이 되었다. 주인은 내 일당을 25전에서 45전으로 올려 주었다. 이때부터는 나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스무 살이 되자 내 일당도 처음보다 세 배나 올랐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撰園史話 ⑮

규 원 사 화

▣ 一沙 權正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檀君旣封諸侯, 天下淸靜. 居十年, 有南夷之患, 卽甲比古次以降夷人也, 乃遣夫餘, 率兵定之. 後益遣夫蘇 夫虞, 築城於甲比古次, 以備南巡, 今江華.三郎城, 是也. 摩利山又有塹城壇, 此卽檀君設壇祭天之頭嶽也. 盖水行藉舟, 陸行藉車, 泥行乘 , 山行則, 此乃上古交通之具. 而陸行不如水行之易, 是以, 上古建都, 必擇臨水之地. 凡人居之稱美者, 必曰阻山帶水, 或依山傍水 背山臨流者, 其所從來尙矣. 故檀君之世, 必使依山臨水而結居, 耕農漁獵, 隨便可行. 《山海經》所謂: [北海有國, 名曰朝鮮, 天毒育也其人, 水居(受)[愛]也人.]者, 非但, 其聲敎之澤, 洽被四 , 亦可窺見, 其結居之風矣. 夫檀君祭天, 非但頭嶽也. 北狩則祭太白, 南巡則祭頭嶽也, 而甲比古次傍在海濱, 通航容易, 則南巡之際, 必致祭於壇所也.

其地, 孤絶靑巒, 山岳淨潔, 海天收霽, 則深晶瑩之氣, 使人自感, 神明之陟降者耶. 余嘗(遊)[游]觀其地, 祭壇疊石, 爲之上圓下方, 而太多頹, 仁祖十七年改築云. 噫! 平壤故城, (王)[壬]儉舊闕, 今不留敗石殘礎, 獨一壘天壇, 得保其形骸, 豈僻處海, 人跡稀到故耶! 余實不勝, 追遠之悲矣.

단군이 제후들을 모두 봉하니 천하는 맑고도 고요하였다. 10년만에 남이(南夷)의 환난이 있었는데, 바로 갑비고차 남쪽의 이인(夷人)들이다. 이에 부여를 파견하여 병사를 인솔해 이를 진정시켰다. 후에 부소와 부우를 아울러 파견되어 갑비고차에 성을 쌓아 이로서 남쪽을 순행할 때를 대비하게 하니, 지금의 강화 삼랑성(三郎城)이 바로 그것이다. 마리산(摩利山)에는 또한 참성단(塹城壇)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단군이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두악(頭嶽)이다. 대저 물로 다닐 때는 배에 의지하고, 뭍으로

다닐 때는 수레에 의지하며, 진흙 위를 다닐 때는 썰매를 타고, 산으로 다닐 때는 징나막신을 신었으니, 이것이 바로 오랜 옛적 교통의 도구이다.

그러나 뭍으로 다니는 것이 물로 다니는 것 보다 쉽지 않았던 까닭에 옛날 도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물에 잇대어 있는 땅을 택하였다. 무릇 사람이 거처하는 곳 가운데 좋은 곳이라 일컫는 곳은 반드시 '산을 막아서며 물을 두르고 있다' 거나 '산에 의지하고 물을 곁에 두고 있다' 거나 '산을 등지고 강을 끼고 있다' 는 등으로 말하는 있는데, 그러한 장소는 예로부터 바라던 곳이었다. 때문에 단군의 시대에 반드시 산을 의지하고 물을 끼고 있는 곳에 집을 지어 거처하게 하여서 농사짓고 어로와 수렵을 함에 편히 행할 수 있게 하였다.

《산해경(山海經)》에 이른바 [북해에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 이름한다. 하늘이 그 사람들을 길렀고(毒은 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에 살면서 남을 아끼고 사랑(는 사랑함을 의미한다)한다]고 한 것은, 비단 그 덕스러운 교화의 은택이 사방에 흡족히 두루 미친 것 뿐만이 아니라 집을 지어 거처하는 기풍 또한 엿볼 수 있게 한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냄은 단지 두악(頭嶽)에서 만이 아니었다. 북으로 사냥을 나가면 곧 태백에서 제사를 지내고, 남으로 순행할 때는 곧 두악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갑비고차는 바닷가에 있어서 배를 통하기에 용이하므로 남쪽을 순행할 때는 반드시 들러 제단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종무위원회비

△권영근(노원)	20만원
△권오중(안동, 부호장공파)	20만원
△권중우(안동, 동정공파)	20만원
△권학주(원주, 추밀공파)	20만원
△권태원(안동, 동정공파)	20만원
△권오열(의성, 복야공파)	20만원
△권기웅(문경, 부정공파)	2차분 10만원
△권영철(대구, 중윤공파)	20만원
△권혁재(대구, 중윤공파)	20만원

소 계 170만원

▣ 대의원회비

△권성갑(순천)	10만원
△권용덕(고양)	10만원
△권혁풍(오창)	10만원
△권영상(여주)	10만원
△권경환(영천)	10만원
△권기순(대구, 중윤공파)	10만원
△권윤성(안동, 중윤공파)	10만원

소 계 70만원

▣ 찬조금

△임하 이우당 종택	10만원

합 계 250만원

후진의 멸망, 외환인가 내우인가?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위진시대에 북조를 일시 통일하였던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이 실패하자 서부지역에서 요장(姚萇)이 다시 진(秦)을 세웠다. 역사에서는 보통 이를 후진(後秦)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그의 아들 요흥(姚興)이 뒤를 이었다가 죽고 요홍(姚泓)이 뒤를 이었다.

요홍은 후진의 황제가 되는데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요홍의 아버지 요흥(姚興)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약을 먹고 발작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아들들은 아버지 있는 곳으로 달려와야 했지만 요흥의 셋째 아들 요필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조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집에서 병사를 모았다. 아버지 요흥이 발작을 일으켰으니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군사를 일으켜서 형인 태자 요홍을 제거하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는 후진의 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문제였다.

이 소식을 들은 요흥은 화가 나서 자기 아들 요필을 보좌하는 당성(唐盛)과 손현(孫玄) 등을 잡아들여 죽였고 아들이지만 요필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태자인 요홍은 간절하게 동생 요필을 위하여 비는 바람에 요필은 죽지 않았다. 태자 요홍은 착한 형인 셈이었고 요흥이 죽자 황제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동진(東晉)에서 옛날 도읍지인 낙양을 빼앗겠다고 유유가 북벌을 벌였다. 유유는 후에 동진을 무너트리고 송(宋)을 건국할 사람이었다. 그러한 유유는 진(晉)의 옛 도읍을 빼앗는 공로를 가지고 동진에서 확실한 권력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세가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다.

후진(後秦)에서는 동진의 북상을 막기 위하여 온 국력을 기울여서 대비해야 했기에 필요한 군사를 동원하여 이를 막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서지역에 있던 황제 요홍의 셋째 동생 요의(姚懿)에게 남쪽으로 이동하여 동진의 군사를 막는 일을 응원하게 하였다. 요홍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그런데 먼저 낙양 지역에 가 있던 요홍의 다른 동생 요광(姚洸)은 충성스런 영삭장군 조현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동진세력과 뒤로 연락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실패하여 동진에 항복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요의가 목숨을 걸고 자기 조국과 형인 황제를 위하여 맡은 일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런데 조국 후진이 위기에 처한 기회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요의 밑에서 군사에 관한 일을 맡고 있는 사마(司馬) 손창(孫暢)이 방향을 바꾸어 황제가 있는 장안을 향하여 가서 황제를 돕고 있는 숙부 요소(姚紹)를 죽이고 황제 요홍도 죽이고 대신 황제가 되라고 권고하였던 것에 넘어간 것이다.

이에 귀가 솔깃해 진 요의는 드디어 손창의 말에 따라서 군사를 일으켰다. 물론 이때에 반란을 일으켜서 안 된다고 간언(諫言)한 좌상시(左常侍) 장창(張敞)과 시랑(侍郎) 좌아(左雅)를 매질하여 죽인 다음이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어 자기가 군사를 일으켰다. 이제 동진의 침략을 막기에 앞서서 후진 자체 안에서 일어난 반란을 먼저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었다. 그야 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었다.

후진의 입장에서는 천우신조(天佑神助)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요의를 공격하는 일에 가담했다. 결국 요의를 꼬드긴 손창은 잡혀 죽었고, 요의도 붙잡혔다. 일단의 위기를 넘긴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내부의 걱정거리를 가진 후진이 왕조를 더 이상 오래 유지하기 어려웠다. 요홍이 등극한지 2년이 되어 후진은 동진의 역사에서 사라진다.

후진의 멸망은 외환인 동진의 침략 때문인가? 아니면 형제간의 다툼 때문인가?

(다음호에 계속)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 김 영 헌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지난호에 이어)

여기서 권율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자.

권율은 1537년(중종32)12월 28일 강화부 연촌 향제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자랐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언신彦信 호는 만취당晩翠堂·모악暮嶽이다.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철轍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준수하고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났으며, 김덕수金德秀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는 시문을 공부하고 문필에 종사하는 것보다 전국 각 지역을 여행하며 풍치 좋은 곳을 살피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우며, 여러 곳의 관방시설과 지세를 익히기를 좋아했다. 이러한 그의 성품은 훗날 왜란을 당하여 중요한 직책이 주어지는 계기가 된다.

원대한 포부를 펴기 위해서는 벼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늦깎이 공부를 시작하여 46세인 1582년(선조15)문과에 급제했다. 중앙관료인 승문원 정자(1582)를 시작으로 전적(1586)·감찰(1586)·전라도도사(1587)·예조좌랑(1588)·호조정랑(1588)이 되었다.

임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 일본과 북쪽 오랑캐의 동태가 심상치 않자 선조는 비변사에 장수를 천거토록 했다. 이때 류성룡이 권율을 '의주목사'로 천거하여 정규의 승즐을 뛰어넘는 정5품에서 정3품으로 발탁되었다. 1592년 봄, 중국 북경으로 간 역관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요동지방을 놀라게 했다는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지만 곧 석방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로 임명되었고 그 후 나주목사, 전라감사 겸 순찰사, 도원수(1593~1598)를 역임하는 등 왜란 내내 선봉에서서 왜적과 싸우다가 1599년(선조32)7월 6일 향년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권율이 광주목사에 임명되기 전 광주목사는 정윤우(丁允祐, 1539-1605)였다. 그는 목사직에서 파직되었음에도 전라감사 이광에게 "빨리 근왕(勤王: 임금나 왕실을 위해 충성함) 길에 나가야 한다."며 건의할 정도로 강직한 인물이었다. 권율보다 12년 앞선 1570년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관료를 거쳐 동래부사, 여주목사, 광주목사를 처례로 지낸 그였지만, 전쟁 상황에서 목사교체는 불가피했다. 『월파집』에 "광주목사 정윤우가 고경명 의병진에 군량 50석과 소 두 마리를 보내왔다."는 6월 4일자기록으로 보아 권율과의 교체 뒤에도 상당기간 광주에 머물면서 관군과 의병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5월 조정은 그를 호조참판으로 발탁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었다.

『선조실록』·『난중잡록』·『월파집』·『상촌선생집』

(다음호에 계속)

바로잡습니다

본지(2013. 10. 1 제460호) 3면 「안동권씨족도」 기사 중 권시중, 권도, 권질, 권시, 권렬 등 보호장공파를 복야공파 서주공계로 바로잡습니다.

마포종친회 11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11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 공덕오거리 →르네상스타워(옆)→공덕지구대(파출소)뒤 →우가촌(설렁탕)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무 권일부 : 02)714-4500, 010-3796-6980

2013년 11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서울 청·장년회 11월 월례회 안내

서울 청·장년회 11월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하고져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11월 7일 (목) 오후 7시
■ 장 소 : 고기풍년 본점 (02)929-4300)
■ 오시는길 : 1호선 제기역 6번출구 좌측골목 20m지점

· 회장 권혁창 : 02)3435-6565 (사) 010-3680-5057
· 사무국장 권순용 : 02)581-1120 (사) 010-4911-9435

e-mail:kojo571@hanmail.net / 인터넷: www.andongkwon.net

2013년 11월 1일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혁창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나결혼정보

소장 권 경 분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성심성의껏 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자택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